

2012년 7대 경영이슈

2012. 1. 17

산업연구실

허광숙, 박용삼, 민세주

Executive Summary

2012년 7대 경영이슈

□ 2012년은 '위기의 일상화'가 특징이 될 전망

- 유럽 경제위기 확산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증가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가 우려되고 세계 경제 Downside 시나리오 가능성 증대
- 국내는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불안 확대에 의해 2012년 상반기 성장률이 3%대 초반까지 하락할 전망

□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7가지 핵심이슈를 시장, 정책, 사회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

- 이슈 1: 산업 전반의 Red Ocean化 확산
- 이슈 2: 高수준에서 요동치는 원자재 가격
- 이슈 3: 낙관할 수 없는 신흥국 경제
- 이슈 4: Green Race 속도 조절 불가피
- 이슈 5: G2發 통상마찰 전세계 확산
- 이슈 6: 주요국 대선 집중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
- 이슈 7: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갈등 증폭

□ 보수적 생존전략(Smart Hibernation)과 민첩한 기회확보 전략(Smart Hunting)을 병행하는 Paradox적 시각 필요

- 불황 극복을 위한 생존(Survival) 전략: 변화된 환경에 적응, 수익성 최우선, 사회적 리스크 대응
- 변화 속 기회포착을 위한 민첩대응(Agility) 전략: 맞춤형 해외진출, 선택과집중형 신사업 개척, 틈새 기회 지속 발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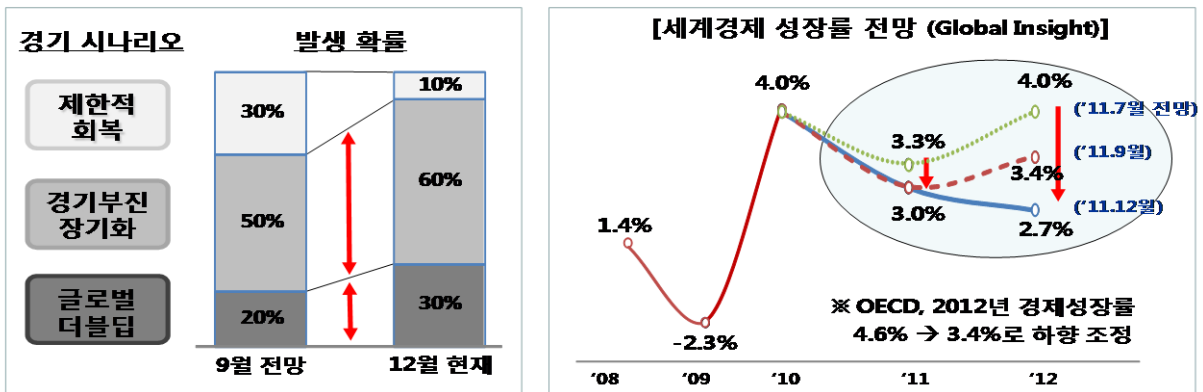
Contents
목 차

I. 2012년 경제 전망	1
II. 7대 경영이슈	2
III. 종합 및 시사점	7

I. 2012년 경제 전망

□ 유럽 경제위기 확산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증가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 우려, 세계 경제 Downside 시나리오 가능성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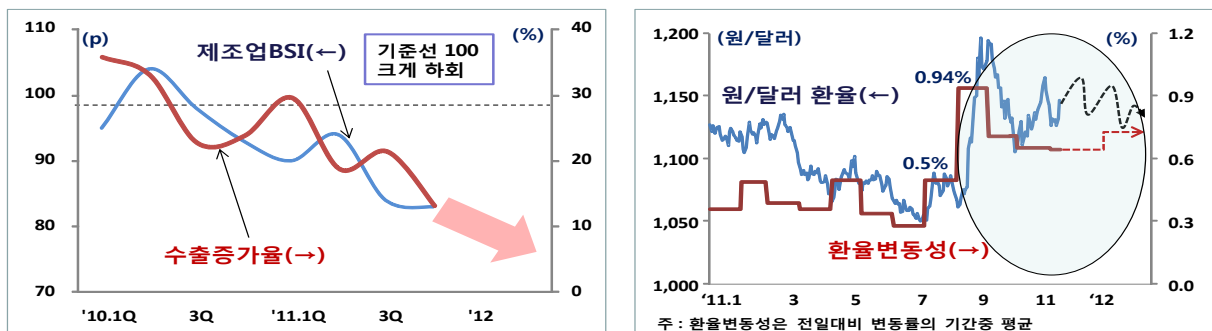
- 각국 경기부양 여력의 한계로 인해 남유럽→동유럽→전세계로 금융 위기 전이(轉移) 위험 상존
- 주요 기관들은 2012년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으며, 유로존 위기가 상반기 중 정점에 이르면서 불황국면 진입 불가피



<그림 1> 2012년 경기 시나리오와 성장률 전망

□ 국내는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불안 확대에 의해 2012년 상반기 성장률이 3%대 초반까지 하락할 전망

- 수출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(2011년 20.7%→2012년 9.7%), 체감경기 악화 지속으로 고용위축과 소비심리 추락 예상
- 외화자금 중 유럽계 비중이 최대인 상황에서(차입 36%, 증권 34%), 유로존 불안 가중 시, 원/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며 변동성 확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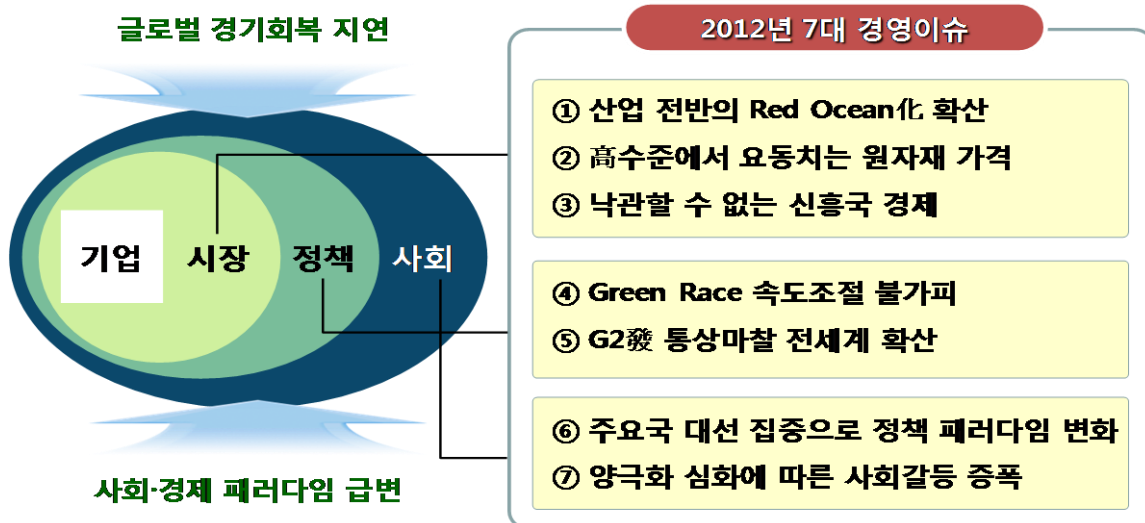


<그림 2> 2012년 국내 경기 및 환율 전망

II. 7대 경영이슈

□ 2012년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사회경제 패러다임 급변 下, '위기의 일상화'가 특징이 될 전망

○ 기업경영의 핵심이슈를 시장, 정책, 사회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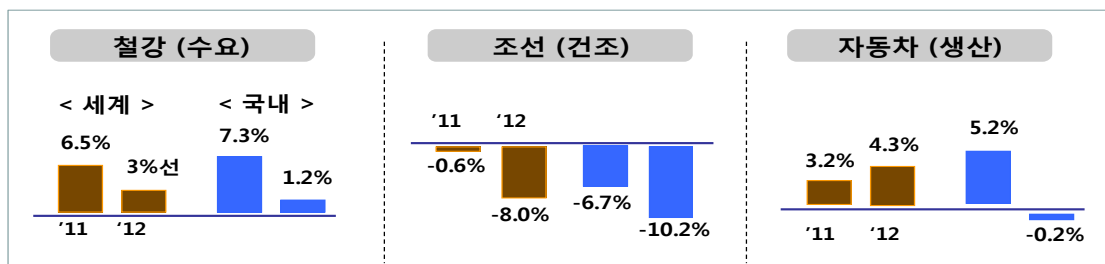


<그림 3> 2012년 7대 경영이슈

Issue 1: 산업 전반의 Red Ocean化 확산

□ 철강, 조선, 건설, 화학 등 주력 산업의 정체 혹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업계 재편 압력 가중

- 철강(수요): 경쟁심화 및 공급과잉으로 감산압력 확산 전망
- 조선(건조): 선복량 과잉이 지속되며 해운 침체 장기화 예상
- 자동차(생산): 일본업체들의 증산으로 글로벌은 소폭 회복세인 반면 국내는 내수 및 수출 모두 부진 우려



<그림 4> 주력 산업 성장 전망

□ 신성장 분야 공급과잉으로 수익성 악화 및 구조조정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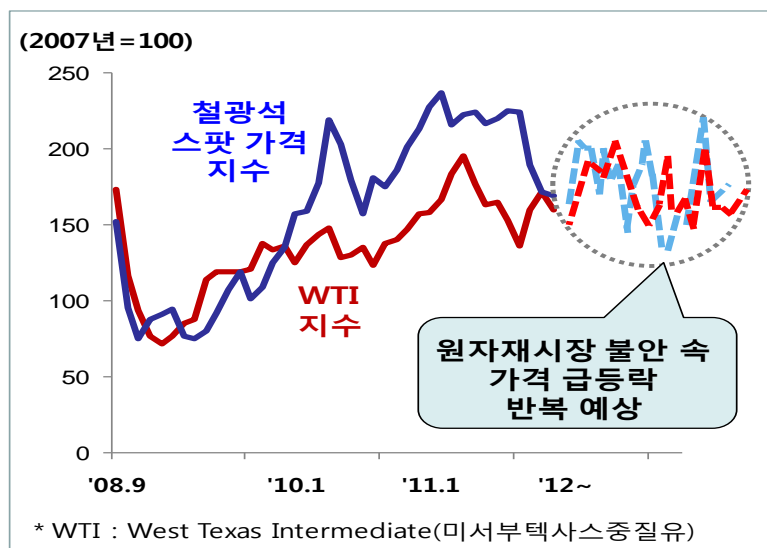
-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은 2011년 한 해 동안 1/2 이하로 폭락: 71.0 (\$/kg, 2011.1)→29.1(2011.12)
- 풍력발전 국내 6대 업체, 2012년 영업수지 적자 반전과 부채비율 급등 우려
- 전기차 배터리, 2012년 末 이후 글로벌 공급과잉 본격화 예상

Issue 2: 高수준에서 요동치는 원자재 가격

□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동 등 주요 지역의 정세불안과 기상이변으로 원자재 공급 차질 및 高가격 수준 유지 예상

- 에너지: 이란, 리비아 등 중동/북아프리카 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차질 예상
- 곡물: 기상이변 빈발로 지역별, 품목별 작황 부진 및 가격폭등 가능성 상존(美 기상청, 라니냐 현상 심화 전망)
- 원자재: 철광석/원료탄 선물시장 활성화에 따른 투기수요 증가와 다양한 가격지수 등장(CISA Index, GlobalOre 등)으로 가격체계 혼란 우려

□ 유동성 과잉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기자본의 가격 교란 가능성 증대



<그림 5> 2012년 원자재 가격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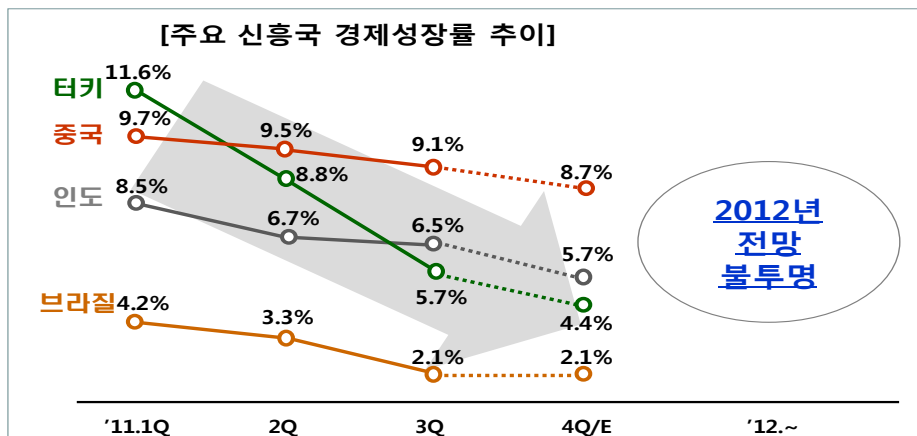
Issue 3: 낙관할 수 없는 신흥국 경제

□ BRICs: 2011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성장률 하락세가 201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

- 선진국 경기 하락 여파로 신흥국 경기 급랭 및 수출 타격 우려
- 투자심리 위축 및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신흥경제권으로의 FDI 감소 가능성 증대
-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며 루피화(인도) 가치 하락 및 헤알화(브라질) 절상 예상
- 외국 자본 유출입 확대 시, 금융시장 불안 가중 가능

□ 후발 신흥국: 경상적자, FDI 감소, 환율 불안, 인플레이 등 리스크 요인 증가

-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내수시장이 건설한 인도네시아, 나이지리아, 카자흐스탄 등 일부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전망



자료 : Global Insight, World Overview 2011.12

<그림 6> 주요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

□ 중국은 내외외환으로 세계경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지 의문, 불확실성 증폭 예상

- 자국 경기급락 방어를 위해 ‘긴축’에서 ‘완화’로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高: 온중구진(穩中求進, 안정 속에서 전진) 정책 표명(중앙경제공작회의 2011.12)
- 일시적인 성장률 방어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잠재적 리스크 증폭 예상: 지방정부 채무, 부동산 버블, 인플레이 압력 등

Issue 4: Green Race 속도조절 불가피

□ 기후변화총회(COP17¹)에서 새로운 감축체제 도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잔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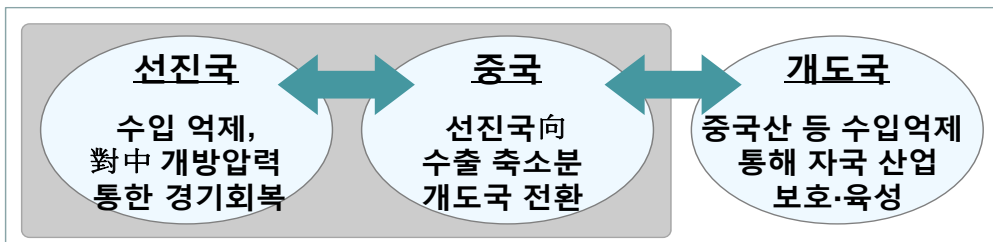
- 교토체제 연장, 2020년까지 새로운 감축체제 및 기후변화펀드 조성 합의
- 주요국의 교토체제 탈퇴 선언(러시아, 일본, 캐나다)으로 단기 탄소 시장 불확실

□ 경기침체 우려 속, 美中 등 주요국의 녹색정책 기조는 유지되나 기업투자는 일시 유보될 전망

[정부정책 측면]	[기업투자 측면]
	
<p>“미국의 새로운 성장은 녹색산업을 통해 가능하다” (美, 오바마 대통령)</p>	<p>투자자 및 부지확보 문제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취소 빈번 (예: 英 SSE, 2.5MW, 2.32억 유로 철회)</p>
	
<p>“중국의 미래는 에너지절감, 환경보호 산업 육성에 있다” (中, 시진핑 부주석)</p>	<p>폴리실리콘 가격급락과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로 사업 철수 검토중 (예: 현대중공업, LG화학 등)</p>

Issue 5: G2發 통상마찰 전세계 확산

□ 전방위 수출확대 정책 對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충돌이 일상화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대



<그림 7> 무역분쟁 확산 경로

□ 전략 충돌에 따른 무역전쟁 심화 및 보복 조치 빈발 예상

- 통상마찰 수단 다양화: 반덤핑, 상계관세 外 기술장벽, 환율정책 활용
(例: 인니, 자국 규격 인증 요구, 美, 환율감시법 시행)

¹* COP17: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: Conference of the Parties)

- 규제 대상 품목 확대: 미래 성장 제품도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(例: 美,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반덤핑 규제)
- 분쟁 발생국 범위 확대: 개도국간 철강재 무역제소 대폭 증가(2건(2007)→6건(2009)→19건(2011.1~11월))

Issue 6: 주요국 대선 집중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

□ 불황기 정권교체 가능성 고조에 따른 정책기조 혼란 예상

- 임기末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既 추진 중인 성장우선 정책의 일관성 유지 난망
- 성장보다는 사회의 고통분담 문제가 주요이슈로 대두되면서 정권 획득용 포퓰리즘, 자국 보호주의, 반시장 정책으로 회귀 우려

□ 글로벌 정책공조 차질 발생 및 일정기간 공백 불가피

- 글로벌 위기 극복에 대한 국가간 입장 대립과 불협화음 발생 시, 경제위기 회복 지연 우려



<그림 8> 2012년 주요국 선거 일정

Issue 7: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갈등 증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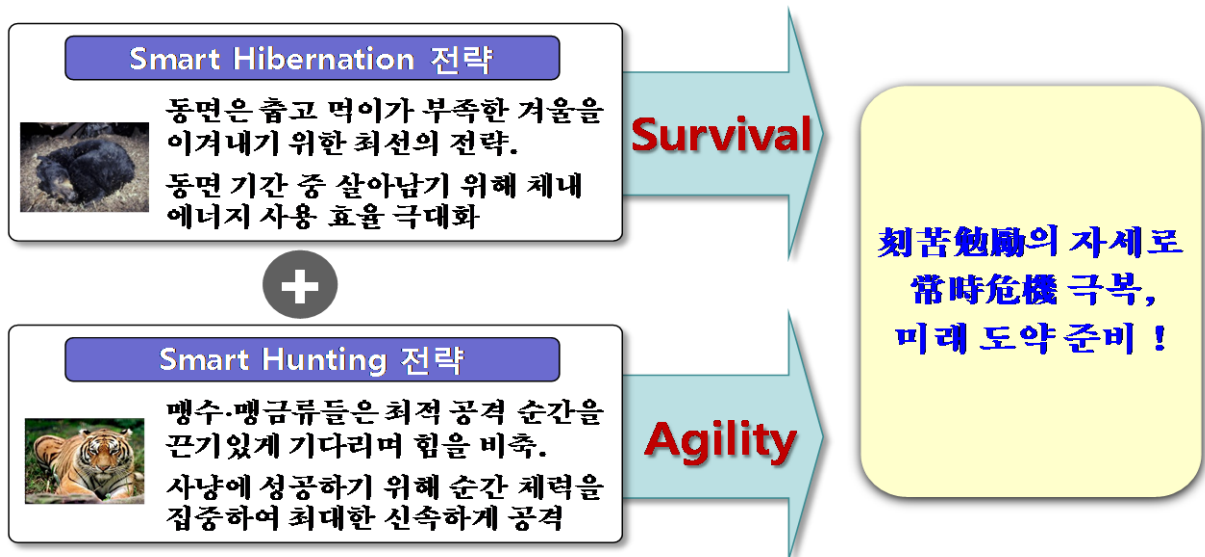
□ 세대간, 계층간, 기업간 양극화 심화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

- 저성장시대 下 청년실업 심각(20~30대 NEET족 30만 명 육박)
* NEET족: 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

- 중산층 해체, 빈곤층 확대로 지니계수 악화(1992년 0.25→2010년 0.31)
 - 영업이익 1조 클럽 증가(2011년 28개) 반면 대기업-중소기업간 순익 격차 확대
-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대기업 정서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·증폭될 가능성 상존
- 오프라인 공간의 ‘디지털 선동’으로 표출 가능(例: 美 월가 점령 시위)
 - 전 사회적 공생발전을 위한 ‘적정이윤(適正利潤)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요구 확산

Ⅲ. 종합 및 시사점

- 2012년 7대 경영이슈 대부분은 경영상 불리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며 기업 차원에서 통제도 여의치 않음
- 일부 요소들간 상승작용 발생 時, 최악의 경영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상존
- 보수적 생존전략(Smart Hibernation)과 민첩한 기회확보 전략(Smart Hunting)을 병행하는 Paradox적 시각 필요



- 불황은 본원적 경쟁력을 점검하고 다질 수 있는 역전의 기회라는 인식 전환 필요

- 불황 극복을 위한 생존(Survival) 전략: 변화된 환경에 적응(Adaptation) + 수익성 최우선(Profitability) + 사회적 리스크 대응(Responsibility)
- 변화 속 기회포착 위한 민첩대응(Agility) 전략: 맞춤형 해외진출(Tailored) + 선택과 집중형 신사업 개척(Focused) + 틈새 기회 지속 발굴(Niche)

허광숙(e-mail: kshuh@posri.re.kr)

박용삼(e-mail: yong3park@posri.re.kr)

민세주(e-mail: sejoomin@posri.re.kr)

☞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.